

작가의 말 _

부산 전시에 부쳐

이번 전시를 위한 주최 측의 원고 청탁을 받고 컴퓨터 자판 앞에 앉았으나 머리말이 쉬 떠오르지 않아 몇 번이나 우두커니 앉았다가 그냥 일어서곤 했다. 그만큼 나에게 부산시절은 순탄한 삶의 장이 아닌 걱정과 혼란의 시절이었다. 그래서 떠올릴 때마다 만감이 교차한다. 원고 마감일이 다 되었다는 연락에 오늘은 차분한 마음으로 자판기 앞에 앉아서 이력부터 간단히 적어보기로 한다. 나는 밀양에서 유년기를 보내다가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 6세 즈음 대구로 이사,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그 후 부산으로 이주 후 정착하여 중학교 시절부터 떠나오기 전 삼십 후반까지 살았으니 거의 반평생을 부산에서 보낸 것이다. 우울하고 예민했던 청소년기와 열정과 광기의 청·장년기를 보내다가 어느 날 불현듯 부산을 떠나 왔으니 나에게 부산은 수많은 우여곡절과 추억이 느닷없이 잘려 나간 채 남겨진 곳이다. 내 삶이 늘 그래 왔듯이 부산과는 그렇게 이별했고 새로운 세계와 마주 섰다.

반항과 저항, 상심과 상실의 부산 시절 중 내밀한 개인사는 묻어두고, 화가로서의 삶 중에서 떠오르는 기억들을 몇 자 간추려 본다. 중학교 3학년 졸업식 날 집과 결별하고 독립하였으니 내 또래들보다는 조금 일찍 홀로서기를 시작한 셈이다. 어린 나이의 독립 생활자의 삶이라는 게 평탄할 리 만무했었으나 그림이 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나를 씩씩하게 잘 헤쳐 나갔다. 어린 시절부터 나에게 유일한 위안이 그림 그리기였고 현재도 앞으로 그럴 것이다. 몇 해 전 누가 나에게 “안 선생은 태생적 화가라요!”라고 했다. 그 순간 무덤덤이 들긴 했지만,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이사도 참 많이 다녔다. 썩 곳을 찾아 화실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부산을 떠나기 전까지 오랫동안 정착했던 곳이 대청동 지금의 부산 근현대역사박물관 그때 당시 미문화원 뒷골목에 위치한 적산가옥 2층이었다. 그곳에서 결혼도 했고 아내와 두 아들도 얻었다. 가난했지만 당당했고 창작 생활도 왕성했다.

그곳에서 시작하고 발표한 작업들이 인간 이후 연작, 가족사진 연작, 새 연작, 위험한 놀이 연작들이다. 내 입장에선 모두 다 굵직한 것들이다. 그 후 가족사진 연작에 대한 애착은 '아리랑 연작'이라는 큰 묶음으로 지금까지 제작과 발표를 거듭하고 있다. 이쯤 되면 생애를 건 작업이라 할 만하지 않은가. 그렇듯 화가인 나에게 부산은 창작에너지의 뿌리가 형성된 곳이다. 나의 끈기와 직선적인 기질은 물론 타고난 것이기도 하지만 쉽 없이 밀려오는 파도에 영향을 받아 더욱 강화되었다고 생각한다. 태풍이 몰아치는 날이면 세상을 찢어놓을 듯이 번쩍이며 울부짖는 하늘과 일렁이는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태종대 벼랑 끝으로 달려가곤 했다. 그곳에서 몰아치는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분노한 자연을 바라보았다. 태풍을 피해 정박해 있던 원양어선이 태산 같은 파도에 실려 판자 조각처럼 떠 있다가 허리가 그냥 툭 부러지며 곤두박질치는 것도 보았다. 그런 풍경을 바라보며 기질이 형성되었으니 어떤 역경인들 쉽게 이겨낼 수 있었으리라.

지금까지 나는 나의 예술과 내 삶이 일치되도록 노력해왔다. 예술과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이루어내고 있는 나의 예술은 내 삶의 반영물이고, 내가 바라본 시대의 정신이고, 저항과 고독과 모험과 자유 정신의 산물이다. 이 모든 것들의 시작점이 부산이고, 그래서 난 고향인 부산에 부채 의식이 있고 그래서 비영리단체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이번 전시 초청을 승낙한 것이다. 초청 이유를 물었더니 고향을 떠나서도 늘 열심히 활동하는 작가라서 꼭 초청하고 싶다고 했다. 그 말속엔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었다. 전시장소가 부산 시절 내가 쏘다녔던 동네 골목에 있으니 더더욱 의미가 있지 않은가! 전시 내용은 드로잉이 주를 이루고 부산 시절 이후의 시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작품들 부산 시절 그림 몇 점들로 구성했는데 장소의 한계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다. 드로잉은 작가의 속살과 같은 것이다. 예민하고 꾸밈없이 정직한 선들로 그려지는 것이어서 감상자들에게겐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갈 것이다.

2024. 7.

한상봉